"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양국 불교·경제교류 상징"

조성식 열린 날 현지 표정

조계종은 지난 5월 50년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13만여명의 이재민을 낸 스리랑카에 총무원장 법장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주지 종상·수덕사 주지 법정·마곡사 주지 진각·화엄사 주지 명섭·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 조계종 마을 조성식을 비롯해 주요 종단지도자 및 정부 수해대책 관계자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단은 3일 라트나푸라 수해현장 방문에 앞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시내에 위치해 있는 강가라마 사원을 참배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

◇'한국불교 조계종마을' 조성식이 9월 3일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리랑카 라트나푸라 현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대표단과 스리랑카 정부관계자 등이 참가한 제막식 모습.

11월 우기전 생활 터전 완공 목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병원불자련 봉사활동

최악 수해 지역, 가옥 1백채·학교·의료시설 등 지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라트나푸라에 도착한 대표단은 수해현장으로 이동, 수산타 분치 닐라메 중소기업장관, 랄 가마게 외교부 부장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 1천여명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주민들은 모래를 이용해 '조계종 대표단을 환영한다'는 문양을 만들고 직접 만든 화환을 목에 걸어주는 등 각별한 환영행사를 마련했다.

스리랑카 전통 춤인 '켈러니안단스' 공연단의 안내로 행사장으로 이동한 대표단은 '한국불교 조계종 마 을(Korean Buddhist Jogye Village)' 제막식과 조성식에 참석했다. 조성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스리랑카 예불, 수해 희생자 추모묵념, 경과 보고, 환영사, 치사, 마을대표 답사, 1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마을은 전국 사찰에서 모금된 2억5천여만원의 성금으로 라트나푸나 현지에 병원과 학교, 가옥 등 100여채를 조성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우기가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조계종 마을을 완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표단은 곧바로 이재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은 유엔구호기금에서 보낸 천막으로 임시 조성돼 있었으나, 전기와 수도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비참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10여평 규모의 천막 안에는 10가구 이상이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참담함도 드러냈다. 특히 병원이 없어 병자와 노약자들이 천막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임시 천막촌과 학교 등지를 돌아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듣던 상황 보다 훨씬 비참한 모습을 보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민들이 하루 속히 재앙을 극복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랄 가마게 스리랑카 외교부 부장관은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 현장에는 수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사체 발굴조차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 가족들이 넋을 놓고 있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이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동안 주변에는 구호물품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떼를 이뤄 안타까움을 더했다. 학용품 등을 나눠주는 스님 주위는 서로 먼저 받으려는 어린이들의 몸싸움으로 순식간 아수라장이 됐다.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빠른 시일내에 조계종 마을이 조성돼 이재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돌아본 대표단은 다음날 4일, 스리랑카 수해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가루 자야수리야 부수상 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 자야수리야 부수상은 지난 5월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수해로 23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피해와 8,317가구의 가옥이 완파되는 등 13만7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트나푸나 지역에서만 산사태 등으로 31개 마을이 파손되고 1,6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야수리야 부수상은 "스리랑카 정부를 대표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으로 조성된 마을은 양국의 불교 교류는 물론 경제 교류 등으로 이어지는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암니카야 두 종정 예방

9월 4일, 옛 수도 캔디로 이동한 대표단은 부처님 진신치아사리가 봉안돼 있는 불치사를 방문한데 이어 스리랑카의 최대 종단인 시암니카야의 라북웰레 위파시(말와타 계통), 우두가마 붓다라키타(아스기리야 계통) 두 종정을 만나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대표단과 두 종정은 양국 불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 계파인 말와타 계통의 위파시 종정은 "수십만 이재민들은 아직까지 생계는 물론 생활터전의 복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준데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조계종 마을 조성이 양국의 불교교류로 이어져 세계불교가 나래를 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한국불교의 작은 정성이 수해를 입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하고 한국에서 준비해 간 성덕대왕신종 모형과 홍삼, 조계종 관계 서적 등을 선물했다.

대표단은 아스기리야 계통의 붓다라키타 종정 및 우루레왓떼 앗타닷시 부종정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붓다라키타 종정은 "수재를 당한 불자들을 위한 조계종 마을 건립은 부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박봉영 기자

◑조계종 마을 어떻게 조성되나

조계종은 지난 7월 '한국불교 조계종 마을'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6일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조계종은 조계종 마을을 빠른 시일내 조성하기로 하고 스리랑카 정부에 완공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라트나푸라에 조성되는 조계종 마을은 부지 169필지에 가옥 1백여채, 마을회관, 의료시설, 공공시장, 학교, 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가옥은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춰 25평 규모로 건립된다.

조계종은 9월 1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해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1차 수재지원성금 5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조성 과정을 지켜본 뒤 총 2억4천여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조계종 마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국제교류기금 가운데 일부를 조계종 마을 후원에 사용하고,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등의 봉사활동을 조계종 마을에서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계종 대표단은 스리랑카 시암니카야의 두 종정을 예방했다. 말와타 계통의 위파시 종정과 환담하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스리랑카 수해대책본부장 자야수리야 부수상에게 성금 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라트나푸라 수해지역 어린이들은 서로 먼저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 들었다. 불국사 신행 스님이 학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 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최저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을 개선하여, 전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용맹정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 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불 천수화는 수행하는 보살님을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가죽이 아닌 신소재 피혁으로 제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 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옴자를 뒤축에,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를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행화 입니다. 또한 뒤축부분을 연꽃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불교만의 독특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천수화는 만행하실때에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험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평상시에 신어도 품위가 있고 세련 되게 디자인된 건강장수 기능성 신발입니다.

(주)SW상사 080-331-1818, 051-334-2494, 314-5618